



한·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cchung@kiep.go.kr, 3460-1184)

임 해 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him@kiep.go.kr, 3460-1158)

권 기 수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3460-1081)

1. 한·페루 FTA 협상개시의 의의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산업별 경쟁력 분석
3. 페루의 통상정책과 한·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페루 FTA 협상의 예상쟁점 및 대응방향

주요내용

▶ 지난 11월 21일 한·페루 양국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09년 상반기 중 추진기로 합의했음.

- 페루 경제의 규모(한국의 1/10)를 감안할 때, 페루와의 FTA 체결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보다는 △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토대 구축, △ 남미지역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 중남미 경제의 떠오르는 블루칩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페루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선점한다는 데 의의가 큼.

▶ 한·페루 FTA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페루의 경제규모가 작고 양자간 무역규모도 크지 않아 한·페루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루가 비교적 높은 관세(9%)를 부과하고 있는 승용차, 모터사이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품목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국간 경제 및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서 한·페루

FTA 협상의 쟁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 대페루 시장접근, △ 분쟁해결 절차 및 간접수용 등 국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 서비스시장 자유화, △ 정부조달시장 자유화, △ 페루의 전반적인 제도 투명성 제고 등의 이슈에서는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농산물 양허유형과 관세철폐, 페루의 무역능력배양(trade capacity building)에 대한 지원요청 등의 예상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페루 FTA 협상은 페루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그중에서도 특히 자원협력에 초점을 맞춘 자원개발형 FTA 모델 구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한·페루 FTA 협상개시의 의의

가. 한·페루 FTA 협상의 공식 개시 및 그간 경위

■ 지난 11월 21일 한·페루 양국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09년 상반기 중 추진기로 합의했음.

-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페루 대통령은 한·페루 협력 의지 표명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기로 약속했고, 그 증거로 "한·페루 FTA 협상을 곧 개시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한·페루 FTA 협상 논의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시 톨레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발됨.

- 이후 2006년 11월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시 양국 민간공동연구기관간 FTA 체결 타당성 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서울대학교, 페루 측은 전국경제인단체(CONFIEP)를 각 연구기관으로 선정, 2007년 10월 리마, 2008년 4월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민간공동연구를 개최함.

- 2008년 5월 양국은 민간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함.

나. 한·페루 FTA 협상 추진의 의의

■ 페루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페루와의 FTA 체결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페루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선점한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페루의 경제규모(1,091억 달러, 2007년)는 우리나라의 1/10 규모에 불과하며, 대페루 수출규모도 5억 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어 관세철폐 등을 통한 단기적인 FTA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먼저 한·페루 FTA는 페루가 갖고 있는 광물에너지, 농림수산자원, 생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페루는 비스무트, 텔루루(매장량 세계 2위, 2007년 기준), 금, 은, 아연(3위), 동, 주석(4위), 납(5위), 몰리브덴(6위) 등 전략적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또한 페루는 최근 대형 유전 및 가스전 발견에 힘입어 중남미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함.

- 특히 페루는 어분, 어유, 아스파라가스 수출 세계 1위, 사탕수수 생산성 세계 1위, 식물다양성 보유 세계 8위, 삼림면적 보유 세계 10위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둘째, 한·페루 FTA는 남미지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 페루는 지리적으로도 태평양에 면해 있는 데다 남미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미지역 진출의 전략적 관문으로서 가치가 높음.

- 페루는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카야오 항구는 한·페루 중남미간 최단 거리 항구임.

- 특히 페루(월평균 임금 330달러, 2007년 기준)는 콜롬비아(709달러), 브라질(499달러), 칠레(485달러), 멕시코(481달러) 등에 비해 임금 수준도 낮아 제조업 진출기지로써도 활용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한·페루 FTA는 중남미 경제의 떠오르는 블루칩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페루는 중남미 경제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데다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시장으로 평가됨.

- 최근 3년간(2005~07년) 페루 경제는 연평균 8%의 고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올해 9%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한·페루 경제협력 현황

■ 페루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10대 수출대상국이자 3대 수입대상국임.

- 2007년 기준으로 대페루 수출규모는 4억 6,6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대중남미 총 수출의 1.8% 비중을 차지함.

- 대페루 수입규모는 10억 3,9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대중남미 총 수입의 9.2% 비중을 점유함.

■ 2003년 이후 큰 폭의 아연광 및 동광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2004년부터 지속적인 적자로 반전됨.

- 적자규모는 2004년 3,809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5억 7,372만 달러로 크게 증가함.

표 1. 대페루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0	10,042	93,898	-83,856
1991	24,626	136,429	-111,803
1992	77,989	114,838	-36,849
1993	57,588	85,562	-27,974
1994	131,570	88,522	43,048
1995	194,237	130,441	63,796
1996	204,452	180,701	23,751
1997	236,177	104,027	132,150
1998	260,274	61,925	198,349
1999	189,617	78,042	111,575
2000	213,412	142,928	70,484
2001	187,837	116,345	71,492
2002	195,834	204,570	-8,736
2003	204,397	194,417	9,980
2004	245,026	283,116	-38,090
2005	282,285	249,489	32,796
2006	358,875	675,897	-317,022
2007	466,161	1,039,888	-573,727

자료: KOTIS.

■ 우리나라와 페루의 수출입은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광물 및 농수산물물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의 형태를 띠.

- 주종 수출품(2007년 기준)은 자동차(24.5%), 무선통신기기(11.4%), 합성수지(11.1%) 등 10대 수출상품이 총 수출의 72% 비중을 차지함.

- 그에 반해 주요 수입품은 아연광(47.9%), 동광(30.3%) 등으로 양대 상품의 비중이 총 수입의 79%를 점함.

표 2. 대페루 10대 수출입 품목(2007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자동차	114,091	24.5	아연광	498,150	47.9
2	무선통신기기	53,240	11.4	동광	314,602	30.3
3	합성수지	51,527	11.1	기타금속광물	100,765	9.7
4	형강	22,748	4.9	철광	32,155	3.1
5	기타석유화학제품	19,620	4.2	수산물가공품	20,398	2.0
6	정밀화학원료	17,026	3.7	석유제품	16,317	1.6
7	자동차부품	15,249	3.3	기호식품	14,518	1.4
8	철강판	15,175	3.3	어육 및 어란	8,758	0.8
9	고무제품	15,082	3.2	연체동물	7,367	0.7
10	건설광산기계	12,858	2.8	천연섬유사	6,831	0.7
	소계	336,616	72.2	소계	1,019,861	98.1

자료: KOTIS.

■ 페루는 2000년대 들어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함.

- 2008년 6월 말 현재 대페루 투자규모는 6억 4,712만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임.

- 업종별로 대페루 투자는 석유·가스전 개발 등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94.3%에 달함.

■ 페루는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대상국임.

- 우리나라 ODA 지원대상국으로 페루의 위상(지원 순위)은 2005년 16위에서 2007년 5위로 크게 높아짐.

나. 양국간 산업별 경쟁력 분석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결과, 한국의 對세계 비교우위산업은 자동차, 전기기기 등의 제조업 제품이며 페루는 농림수산물과 광산물, 섬유 및 의류 등 1차 산업 및 노동집약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임.

■ 한·페루 양국의 상대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MCA)를 분석한 결과, 페루는 한국의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섬유 및 의류, 기타운송장비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한국은 페루의 광산물과 섬유 및 의류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임.

표 3. 양국의 지수별 비교우위산업

	한국	페루
對세계 비교우위 (RCA)¹ 산업	금속¹차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정밀기계제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물, 섬유 및 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¹차제품
상대시장에서의 비교우위 (MCA)¹ 산업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섬유 및 의류, 기타운송장비	광산물, 섬유 및 의류

주: 굵은 글씨로 표기한 산업은 RCA와 MCA 지수가 일치하는 산업임.

■ 양국간 상대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MCA)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한국의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섬유 및 의류산업은 對세계 기준으로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나 (RCA)¹, 페루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FTA를 통해 이들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對페루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FTA 협상시 우리나라의 전형적 수출품(RCA)¹인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전기기기 및 부분품, 정밀기계제품 등이 페루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들 품목의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함.

– 반면 페루의 전형적 수출품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이 광산물과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황을 비추어볼 때, FTA 협상시 농림수산물, 음식료 및 담배, 비금속 광물제품이나 금속¹차제품 등의 품목에 대해 우선적이며 대폭적인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역특화지수(TSI) 분석결과, 한국의 對페루 TSI는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물, 그리고 금속¹차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RCA, MCA 분석과도 일관된 결과임.

– 이는 양국의 對세계 TSI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지만,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상세품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이 對세계 수출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도 기술집약적이거나 자본집약적인 상세품목에서는 페루에 대해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을 보임.

■ RCA, MCA, TSI 등 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일부 산업(금속¹차제품, 섬유 및 의류, 비금속 광물,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세품목분석이 원인규명에 효과적이며, 또한 개별 상세품목에 대한 구체적 협상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3. 페루의 통상정책과 한·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가. 페루의 대외통상정책

■ 오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페루는 1990년대 들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선회했으며,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은 FTA 선도국으로 부상함.

■ 특히 페루는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달리, 일찍부터 아시아태평양 양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해오고 있음.

– 페루는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APEC에 가입(1998년)함.

– 페루는 2002년 아시아 국가와는 처음으로 태국과 FTA 협상을 개시, 2006년 11월 FTA를 체결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싱가포르와, 2008년 11월에는 중국과 FTA 협상을 완료함.

표 4. 페루의 주요 무역협정 체결 현황

연도	주요 협정 내용
1969	– 안데스공동체(CAN) 설립
1995	– WTO 가입
1998	– APEC 가입
2003	– MERCOSUR와 FTA 체결
2005	– 태국과 FTA 체결
2006	– 미국과 FTA 체결 – 칠레와 FTA 체결
2007	– 싱가포르와 FTA 협상 종료
2008	– 캐나다와 FTA 협상 종료 – 중국과 FTA 협상 종료
협상중	– EFTA – CAN-EU Association Agreement

■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과의 FTA도 대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정책의 연장선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페루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FDI 유치 및 기술이전,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 축소 등을 기대함.

나. 한·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 한·페루 FTA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양국간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가 페루 경제에 비해 10배 가량 크기 때문에 FTA 효과는 페루 경제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 한·페루 FTA로 한국은 0.01% 소득증가, 0.006% 후생증가, 0.03%의 수출입증가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 페루의 경우 양자간 FTA로 0.23% 소득증가, 0.22% 후생증가, 0.66% 수출, 0.65% 수입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표 5. 한·페루 FTA 경제적 효과

거시경제변수	한국(%)	페루(%)
후생	0.0063	0.2200
GDP	0.0100	0.2300
수출	0.0311	0.6600
수입	0.0345	0.6500
무역수지	-0.0001	0.0000
고용	0.0000	0.2900

자료: 김종섭(2008), 「한-페루 FTA 추진 필요성」, 한-페루 FTA 공청회 자료.

- 품목별로 수출의 경우 승용차, 모터사이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등 비교적 높은 관세(9%)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를 크게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종 수입품목인 아연광 및 동광의 수입관세가 0%이므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냉동어류, 포도, 커피, 사탕수수당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4. 한·페루 FTA 협상의 예상쟁점 및 대응방향

■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페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품분야 협상시 우리나라 상품의 대페루 시장접근을 높

이기 위한 품목별 전략 구축이 요구됨.

- 상품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페루의 중고품 및 재제조품(remanufactured goods)에 대한 수입제한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페루는 의류, 신발 등 중고품, 중고자동차, 중고트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재제조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중고자동차와 트럭의 경우 45%의 높은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 참고로 미·페루 무역특혜협정(TPA)은 엔진, 자동차 부품, 광산 및 건설 장비, 수송기계, 의료기구, 컴퓨터 등 재제조품의 수입제한을 철폐한 바 있음.

■ 농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양허유형과 장기 관세철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페루는 쌀, 옥수수, 설탕, 낙농제품 등 자국 민감 농산물에 대해 가격밴드를 적용하고 있으나 미·페루 무역특혜협정(TPA)에서 이러한 가격밴드를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음.

○ 1991년부터 페루는 46개 농산물에 대해 가변종량세(Variable Specific Duty)로 알려진 가격밴드 도입을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가격이 정해진 최저 수입가격을 하회할 경우 종량세를 적용해 급격한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국 생산업자를 보호함.

■ 원산지 규정에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페루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특혜협정(TPA)에서처럼 무역원활화 또는 통관절차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페루는 통관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우리나라의 페루 투자진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투자자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ISD) 및 간접수용 등 국내투자자의 재산권보호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미·페루 무역특혜협정(TPA)에서 페루는 자국의 여러 서비스부문에서 비차별대우와 시장접근을 허용하였는바, 우리나라

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페루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페루는 미국과의 무역특혜협정(TPA)에서 광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에너지, 정보, 특급배달, 시청각 및 방송을 포함한 오락부문에서 WTO에서의 양허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약속함.
- 미국과의 무역특혜협정(TPA)의 금융부문에서도 페루는 시장접근과 비차별대우를 허용하였으며, 미국의 자산운용 서비스도 양허함.

■ 페루는 WTO 복수간(pluralateral)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페루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함.

- 협상 추진시 미·페루 무역특혜협정(TPA)의 정부조달 양허 수준 또는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수준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 민간건설업 및 관련투자의 대페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페루 건설서비스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확대가 필요함.
- 한편 페루는 정부조달 계약입찰에서 자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기업에게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외국기업의 페루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미·페루 무역특혜협정(TPA)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를 철폐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페루는 개도국인 관계로 협상시 자국의 무역능력배양(trade capacity building)에 관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미·페루 무역특혜협정(TPA) 협정문에서도 무역능력배양에 관한 조항이 있음.
 - o 동 조항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능력배양에 대해, 무역에 따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해 필요한 개혁 및 투자에 대한 촉매제로 인식하고 '무역능력배양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함.
 - o 동 위원회는 개혁과 무역 증대를 위해 무역능력배양 관련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국제공여기구, 민간단체,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권유함.

■ 마지막으로 페루의 전반적인 제도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한·페루 FTA는 페루의 경제규모가 작고 양자간 무역규모도 크지 않아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국간 경제 및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서 FTA 협상의 쟁점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 따라서 한·페루 FTA 협상은 페루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협력에 초점을 맞춘 자원개발형 FTA 모델 구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KIEP**